

2012 문화기상도

새해가 밝았다. 올 해 광주지역 문화계는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과 '페스티벌-오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정율성음악제, 여수 엑스포 관련 등 그 어느 때 보다 불거리가 풍성하다. 또 광주아트페어 등 크고 작은 국제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고 미술·문화·무용·공연 등 각 분야 깊은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도 기대된다. 올 한해 광주에서 펼쳐지게 될 문화행사를 미술, 공연 등 3회에 걸쳐서 미리 살펴본다.



신년 광주지역 미술계는 '2012 아트 광주'와 시립미술관 20주년 개관 기념전 등 풍성한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시립미술관 '인상'과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 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호남 화단의 역사 담은 전시 선보인다

(1) 미술

광주 미술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선)은 올 해 한국 회단 100년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등 풍성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광주문화재단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된 이트광주는 올 해 3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립 미술관과 갤러리들도 다양한 전시와 활발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 등 기대=개관 20주년을 맞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4~6월 국내 현대 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I·II' 전을 연다. 2 차례 나뉘어, 허백련·오지호·양수아 등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호남 화단의 역사와 의미를 국내 회화사와 비교 감상할 수 있게 기획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의 국교 수립 20주년을

시립미술관 20주년 특별기획전·국제전 등 풍성

신진작가 발굴, 지역작가들의 해외 진출도 기대

맞아 광주비엔날레 기간인 9~10월 중국 금일미술관과 교류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개관한 금일미술관은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영 비영리 공익성 미술관이다. 이번 교류전은 지역 작가들이 금일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고,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지역 작가를 알릴 수 있는 '지역작가 특별기획전'(9~11월), '원로작가 초대전'(12월~2013년 1월), '하정 응천년작가초대전'(12월~2013년 1월) 등도 기대되는 전시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도 지역 작가 중심의 단체초대전, 중견작가 전 및 청년초대전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활발하게 추진한다. 새로운 국내 미술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3년 개관·기부센터) 인근으로 시립미술관 서울 분관(라이트갤러리)을 이전하는 등 외형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제25

또 지역 작가를 해외 화단에 소개하는 작가 육성 프로그램도 늘린다. 최근 독일의 마이클 슬츠 갤러리와 양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교류하는 방안 등을 협약했다.

▲지역 작가들의 전시도 풍성=아트 디렉터 이지연씨가 총지휘하는 '아트광주 2012'는 올 해 참여 화랑 수를 더욱 늘리는 등 지난해에 비해 규모를 30% 가량 키워 열린다. 또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안공간과 비영리기관, 해외 유명 미술관을 초대할 계획이다.

광주미술협회(회장 정순희)는 위탁 운영 중인 금남로분관에서 아시아를 비롯해 각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12 국제여성미술제'(9월)와 제14회 한·중 서예교류전(10월) 등 이색 국제전을 연다.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돋우고 있는 나인갤러리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인갤러리는 2월 홍콩 아트페어, 3월 뉴욕스코프, 4월 도쿄아트페어 등의 미술 시장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크루기자 kroh@kwangju.co.kr

회광주시미술대전'(5월 11일~6월 7일)과 '제24회 대한민국한국화대전'(11월 17일~12월 18일)을 개최한다.

무등산 자락에 동지를 틀 사립미술관도 의미 있는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올 해 '화음-새들이 노래하는 마을'전(2월 26일까지), '생명의 균원 가족'전(가제·4월 24일~6월 8일), '빛-뉴미디어'전(6월 10일~9월 30일), '한·중·일 국제교류-아름다운 동행'전(9월 1일~10월 30일) 등을 연다.

유제길미술관은 인근의 학운중과 연계해 진행하는 전시·교류 프로그램인 '15세의 예술 뮤직'(4월 3일~5월 26일), 프랑스 작가 등을 초대해 작품 제작 시연회 등을 곁들여 '국제관화워크숍'(7월 12일~8월 30일), '비엔날레 기념 현대미술 6인'전(9월 1일~9월 20일) 등을 연다.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돋우고 있는 나인갤러리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인갤러리는 2월 홍콩 아트페어, 3월 뉴욕스코프, 4월 도쿄아트페어 등의 미술 시장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크루기자 kroh@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2012년 1월 4일 수요일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since 1952

2012년 제57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57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구 분	예선 지정곡(3곡중 1곡)	본선 지정곡(3곡중 1곡)
초등부 1·2학년		1) W. A. Mozart, Sonata K. 545, C Major, 1악장 2) W. A. Mozart, Sonata K. 330, C Major, 1악장 3) W. A. Mozart, Rondo K. 485, D Major
초등부 3·4학년	예선 없음 (단심)	1) L. v. Beethoven, 7 Variations WoO 78, C Major for God save the king 2) L. v. Beethoven, Sonata No.1 Op.2-1, f minor, 1악장 3) L. v. Beethoven, Sonata No.6 Op.10-2, F Major, 1악장
초등부 5·6학년		1) F. Schubert, Impromptu Op.142 No.3, Bb Major 2) F. Chopin, Waltz Op.64-2, c# minor 3) R. Schumann, Abegg Variations Op.1
중 등 부	1) F. Chopin, Etude Op.10 No.8 2) F. Chopin, Etude Op.25 No.9 3) F. Liszt, 2 Concert-Etudes 중 'Gnomenreigen'	1) L. v. Beethoven, Sonata No.11 Op.22, Bb Major, 4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No.24 Op.78, F# Major, 1악장 3) L. v. Beethoven, Sonata No.27 Op.90, e minor, 1악장
고 등 부	1) F. Chopin, Etude Op.10 No.1 2) F. Chopin, Etude Op.10 No.10 3) F. Liszt, Paganini Etude No.6	1) L. v. Beethoven, Sonata No.2, Op.2-2, A Major 1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No.23, Op.57, f minor, 1악장 3) J. Brahms, Sonata No.2, Op.2, f# minor, 1악장
성악독창 : 자유곡 1곡		1. 개인침기부문은 암보(暗譜)를 원칙으로 함. 2.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관악·현악·기악(독주) : 자유곡 1곡		3.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증 충당할 수 있음. 4. 예·본선이 있는 부문은 참가자의 40%를 본선진출자로 선발하며, 기타 부문은 참가자의 30%를 입상권으로 함.
관악·현악·기악(합주)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5. 최고상 대상자중 심사결과 90점 미만 득점자일 경우 최고상을 시상하지 않음.
중창·중주 : 자유곡 1곡		
합창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유의사항

1. 개인침기부문은 암보(暗譜)를 원칙으로 함.

2.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3.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증 충당할 수 있음.

4. 예·본선이 있는 부문은 참가자의 40%를 본선진출자로 선발하며, 기타 부문은 참가자의 30%를 입상권으로 함.

5. 최고상 대상자중 심사결과 90점 미만 득점자일 경우 최고상을 시상하지 않음.

문의: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062)220-0541

홈페이지 (<http://kjmedia.co.kr>)

'북촌방향' '세상의 모든 계절' 특별상영

전문가가 뽑은 작년 최고의 영화, 7일·14일 광주극장

'스티브 잡스' 공식전기

두달 만에 50만부 돌파

지난해 영화전문기자와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였던 흥상수 감독의 '북촌방향'과 마이크 리 감독의 '세상의 모든 계절'은 영국에 사는 60대 노부부 톰과 제리, 그들 곁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7일 오후 5시 20분 '북촌방향', 14일 오후 5시 30분 '세상의 모든 계절'을 특별 상영한다.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가는 '북촌 방향'에는 유준상·김상중·송선미·김보경 등이 출연했다. '세상의 모든 계절'은 영국에 사는 60대 노부부 톰과 제리, 그들 곁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7일 오후 5시 20분 '북촌방향', 14일 오후 5시 30분 '세상의 모든 계절'을 특별 상영한다.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정을 따라

영화감독이었던 성준이 서울 북촌에 사는 선배를 만나는 과